

CAGLIERO 11

살레시오 선교 활성화를 위한 회보



**JMJ 2011
MADRID**

사랑하는 살레시오 선교사 그리고 살레시오 선교를 도와주는 친구 여러분!!!

8월 16일 - 21일, 살레시오 청소년 운동(www.bosco2011.com)에 참여하는 7000명의 젊은이들이 마드리드 중심에 있는 아토카의 살레시오 학교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들은 26차 세계청년대회에 참여하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분명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젊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아울러 그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은 나눌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도 각자의 성소 이야기의 나눔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단순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살레시오 성소와 살레시오 선교 부르심을 젊은이들과 나누어 달라고 초대합니다. 용기를 냅시다.

당신은 어떻게 돈보스코나 살레시오회원을 만났으며, 살레시오 회원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요?

양성과정(동반, 양성자, 경험, 권유)에서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 후 계속되는 과정에서 살레시오 회원들은 당신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오늘날 당신에게 살레시오 선교사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 있나요?

당신의 성소(선교사)에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당신의 살레시오 생활에서 영향을 준 특별한 사람이나 사건이 있었나요?

살레시오 원이나 선교사가 되고 싶은 젊은이에게 무슨 충고를 하고 싶으세요?

영적성장이나 성소의 측면에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나요?

Václav Clement
선교 평의원,
바츨라브 클레멘트 신부

믿음의 의미를 찾는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사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절실한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 꿈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선포요 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총명한 생명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무관심이나 게으름의 삶이 아니라 망설임 없는 열정의 삶이었습니다.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이라는 단어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당신의 일을 완수해 나갑니다. 이 불은 무엇보다도 기도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이는 우리 안에서 평화와 우리의 생활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삶속에서 활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인내와 충실과 투신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사람을 특별히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이다 ...

나의 사랑하는 살레시오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를 청하거나 성사생활과 교회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인내롭고 지혜로운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젊은이들을 만나기 위해, 성령께서 여러분을 열정과 창의성과 자격을 갖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별을 따라가는 자기들의 여정에서 무엇보다도 현자들 특히 예루살렘의 학자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이들은 아직 왜 믿어야 하는지, 믿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차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사목 전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파스칼 차베스 신부
2011년 1월 31일 살레시오 청년 운동에게 보내는 메시지.



예약된 일정들

- 8월**
05-06> 남 아시아 DIAM 모임 (인도 캘커타)
07-11> 남 아시아 선교연구 - (인도 캘커타)
14-18> 동 아시아 선교연구 - (태국 상프란)
21-25> 호주 선교연구 - (파푸아 모레스비항)

- 9월**
01-25> 새 선교사 양성과정 (로마 - 토리노)
25> 선교사 십자가 수여 (토리노)
9월 19일 - 12월 8일> 선교사 양성과정 (로마 UPS)

자원봉사에서 커다란 기쁨을 경험하고, 나의 살레시오 성소를 찾았다.

나의 삶에서 신앙은 항상 기둥처럼 중요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크리스찬 교육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본당활동을 했다. 오랫동안 복사를 했으며 주일학교에 나갔다. 그리고 학업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선교 체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그들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누고 싶었다. 나의 친구를 통해 오스트리아에 있는 살레시오 자원봉사를 알게 되었는데 이는 NGO의 지원을 받는 "Jugend Eine Welt - Don Bosco Aktion Austria"였고 나는 즉시 가입했다.

내가 멕시코로 떠났을 때 내 나이는 19세였고, 젊은이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티후아나에 있는 도움이신 마리아 성당과 오라토리오에서 일했다. 살레시오 회원들은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생활을 나누었다. 하루는 기도와 함께 준비한 아침식사로 시작되었고 하루 종일 일한 후에 밤인사(buona notte)로 끝났다. 좋은 일과 덜 좋은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기도를 함께하는 것이 매일의 일과였다. 많은 일들 안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경험들을 하였고 또 그렇게 되도록 서로들에게 좋은 도움도 되어주었다. 이렇게 나는 매일 매일 식구가 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이 기간 동안 내가 많이 성숙한 것 같았다.



한해를 이 마을에서 보내면서 멕시코인들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축제는 민속적이며 종교적인 축제였다. 나는 여기서 그들의 역사와 기쁨 그리고 고통을 알게 되었다. 이들도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배웠기를 바란다. 문화의 만남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살피우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문화의 다양성이 어떤 때는 몰이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모두들 자신의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듣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살레시오에서 봉사활동을 한 그해가 나의 성소여정의 결정적인 해였다. 살레시오 봉사활동을 통해 성숙하게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로 돌아 온 후 자원자 생활을 시작했고, 이듬해 이태리의 베네롤로에서 수련을 했다. 2009년 8월 8일 나의 삶을 하느님께

축성하였으며, 지금 사제직을 준비하고 있다. 정말 돈 보스코를 닮고 싶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 싶다.

신학생 피터 린데르

독일의 베네딕보이언에서 수학중인 오스트리아 출신



살레시오 선교 지향

스페인 - 세계 청년 대회

스페인의 모든 살레시오 회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자리를 잡게"(골 2,7)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의 신앙과 성소의 여정에 동반자가 됩시다.

스페인의 6개 관구 (바르셀로나, 빌비오, 레온, 마드리드, 세빌야, 발렌시아)의 약 11명의 회원들이 도전과 희망으로 가득 찬 역사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사회 안에서 새로운 성소 사목과 복음 선포자로서 관구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제 26차 세계 청년 대회가 9월 16-21일 사이에 마드리드에서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살레시오 회원들 위해 우리의 카리스마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원고를 cagliero11@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